

비상계엄에 맞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선언하다’

문화로 만나는 ‘오월’

〈3〉 오월미술제

‘생물민주주의’ 주제...33명 작가 참여
29일까지 은암미술관·무등갤러리
회화·설치·영상·애니·미디어 아트 등
16일 시립미술관서 학술포럼·작가토크



김하순 작 '일어서는 목소리'



성효숙 작 '새날, 새날을 열리라'



‘2025 오월미술제’가 은암미술관과 무등갤러리에서 ‘생물민주주의’를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펼쳐진다.

민주주의는 다양하게 정의된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정치체제로 규정되는데 대의민주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 개념과 범주가 유기적인 생명체로 확장되고 있다. 이때의 민주주의는 공생 진화하는 ‘생명 활동’으로 인식되며, 인간을 넘어 다른 생명체들의 주체적인 활동으로까지 연계된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생물의 관점, 꿈과 욕망이 깃든 역동적인 생명활동의 시각에서 풀어낸 미술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월미술제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민미협), 은암미술관이 주관하는 ‘2025 오월미술제’(감독 김신윤주)가 그것. 오는 29일까지 은암미술관과 무등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 주제는 ‘생물민주주의,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선언하다’.

이번 오월미술제에는 총 33명의 작가가 초대됐다. 회화, 설치, 영상, 사운드,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 등 여러 매체의 작가들이 주제를 구현한다.

김신윤주 감독은 “이번 전시는 민주주의를 인간과 비인간, 시간과 공간, 역사와 환경 등 모든 주체들이 서로 접속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망 속에서 각자의 욕망과 잠재성이 새로운 사건으로 발현되는 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은암미술관에는 김병택, 김희련, 최재덕, 박성완, 박태규, 손향옥, 김광래, 정희승, 박철우, 김우성, 박진희, 정만영, 김미련, 전진경, 전승일, 성효숙, 이정기, 양동규, 현유정, 신동석, Ainhoa Martinez 등 모두 21명이 초대됐다.

‘생물민주주의,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선언하다’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선 민주주의의 재재구성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작가들은 80년 광주 5·18민중항쟁을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연계해 작품으로 표현했다.

박태규의 ‘파면불꽃’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윤석열 파면’, ‘탄핵’이라는 선명한 문구를 배치해 민심의 분노를 묘사했다. 노도와 같은 불꽃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버린 윤석열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투영한 것이다.

성효숙의 ‘새날, 새날을 열리라’는 비상계엄이 무위로 끝나고 파면 이후의 도래할 ‘새날’을 구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별의 두 남녀가 재회하는 가운데 하늘에서는 커다란 새들이 이들의 만남을 축하한다. 커다란 농동자를 배면에 배치해 활짝 열어젖힐 민주주의에 대한 기원과 감시의 뜻을 담아냈다.

정희승의 ‘미륵’은 오늘의 모든 상황을 굽어보는 미륵의 모습을 다각도로 포착한 작품이다. 무심한 듯 무표정한 미륵이 바라보고 희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인자한 표정 외에도 찌그러지고 다소 화가 난 모습의 미륵은 오늘의 시대를 향한 무언의 경고로 읽힌다.

이밖에 김병택의 ‘다시 만난 세계’, 박철우의 ‘12·3 내란’, 김우성의 ‘유령이 온다’, 손향옥 ‘밥그릇-비우고 채워지다’ 등도 민주주의를 다각도로 사유해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제2전시관인 무등갤러리에서는 ‘해방하는 신체’를 모티브로 12명 작가들이 전시를 열고 있다. 작가들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일제로부터 해방을 이루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자유와

투쟁의 연대기를 저마다의 회화적 언어로 풀어냈다. 김경화를 비롯해 김하순, 노주일, 문서현, 박재열, 방정아, 서지연, 윤은숙, 이동근, 이상호, 최대주, 홍성담 등 12명 작가가 출품했다.

작가들은 일제 강점기 폭압의 시대를 탈피하는 일련의 활동을 ‘해방하는 신체’로 은유했다. 노주일의 ‘반토막 나라의 꿈’은 독립을 넘어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염원을 투영했다. 바다에서 뛰어 오를 물고기가 북을 주시하는 모습은 언제고 다가올 통일에의 꿈을 상징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시와 연계해 5·18 45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포럼이 오는 16일 오후 1시 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김신윤주 감독을 좌장으로 유기쁨(잡초와 연대-광장의 기억과 생태 커뮤니티), 임지연(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있는 미학적 사정) 등이 발제를 한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작가 토크(작업실에서 광장까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흥우&신수경 시인의 사랑

전남대 음악학과, 20일 예향홀

로베르트 슈만에게 1840년은 ‘가곡의 해’로 불린다. 오랜 시련 끝에 클라라와 결혼한 그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냈다.

사랑의 설렘과 고뇌, 회한이 교차하는 그의 선율은 당시 낭만주의 가곡의 정수를 보여준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가 주관하는 ‘박흥우&신수경의 슈만-시인의 사랑’ 음악회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예향홀에서 열린다.

무대는 중앙대와 비엔나 국립음대 대학원을 거쳐 리더라 이히 대표를 맡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바리톤 박흥우와 인디애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남대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신수경이 함께 꾸민다. 두 연주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만큼 클래식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의 문을 여는 곡은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 24’.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인 이 작품은 ‘아침에 일어나 묻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나의 슬픔의 아름다운 요람’ 등 9곡으로 구성된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향한 그리움과 분노, 체념의 감정이 밀도 있게 담겨 있으며, 강한 악센트와 서정과 격정 사이를 오가는 선율이 인상적인 곡이다.

이어 연주될 작품은 슈만의 대표 연가곡집인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 48’이다. 하이네의 시집 ‘서정적 간주곡’ 중 16편을 발췌해 구성한 이 작품은 사랑의 기쁨부터 상실, 회상까지의 정서를 아우른다. ‘아름다운 오월’, ‘내 눈물에서는’, ‘오래된 나쁜 노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첫 곡 ‘아름다운 오월’은 “아름다운 5월에/모든 꽃 봉오리가 피어날 때/내 가슴속에서 사랑이 움텃네”라는 가사로 시작된다. 봄날의 계절감과 어우러져, 클라라를 향한 슈만의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곡이다. 지금 이 계절과 맞물리며 관객에게 더욱 진한 감상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 초대.

/장혜원 기자 hey1@



오는 17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박물관 속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예술, 새로운 방식으로 과거와 만나다

국립광주박물관·박물관문화재단

17일 ‘박물관 속 무용’ 공연

과거를 품는 박물관이 무용과 함께 숨을 쉬기 시작한다. 정적인 공간에 생동이 더해지는 순간, 예술은 새로운 방식으로 과거와 만난다.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유물과 현대무용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

‘박물관 속’ 다섯번째 시리즈, ‘박물관 속 무용’이 오는 17일 오후 8시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앞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다.

무대는 국내 무용계를 선도하는 LDP(Laboratory Dance Project)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단 M.A.P(Movement. Analysis. Performance)의 협업으로 채워진다. 이들은 김보라 안무가의 작품 ‘Runner’를 통해 역동적인 움직임을 그려낸다.

지역 예술가들의 무대도 함께한다.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이숙영 교수가 총감독을 맡은 ‘10 sequence’는 무용수의 몸이 열 개의 시린

스를 통과하며 해체되고, 다시 조립되는 과정을 통해 감각의 기억을 되짚는다. 무용수 김현주, 심예영, 양고는 등이 참여한다.

공연을 즐긴 뒤에는 전시실로 향해 다양한 유물들을 둘러볼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대표 유물인 ‘금동관’은 고종 김두리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화려한 문양과 정교한 세공이 어우러진 장식물이다. 착용자의 위엄과 예술의 품격을 동시에 전하는 이 관은 찬란했던 고대의 미감을 담고 있다.

공연 및 문화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홍선 국립광주박물관장은 “무용과 함께하는 이번 시도가 관람객에게 박물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 속’ 문화예술 시리즈를 진행 중이다. 올해 주제는 ‘박물관 속 무용’으로 5~11월까지 광주·전주·대구·제주 등 11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The blue-날다’

‘청색’이 주는 깊으면서도 다양한 감성

정혜영 ‘BLUE & BLUES’ 전
20일까지 강진아트홀 전시실

청색은 신비로운 색이다. 청색에 대한 단상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철학적이고 예술적이며 심미적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화폭에 드리워진 청색은 사유 그 이상의 것을 품고 있다.

한국화가 정혜영의 청색이 환기하는 감성은 맑으면서도 깊다. 깊으면서도 다양한 언어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혜영 작가가 강진아트홀 전시실에서 작품전을 열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여는 전시 주제는 ‘BLUE & BLUES’.

작가는 3m에 이르는 작품 10여 점을 포함해 25점을 출품했다. 지금까지남도 한국화의 방향 모색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재료와 내용 뿐 아니라 드로잉 퍼포먼스를 매개로 작가적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승원 소설가와 시화전을 통해 콜라보를 넘는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전시 주제 ‘BLUE & BLUES’는 ‘청색’과 ‘우울’을 의미한다. 피상적으로 보이는 청색은 마냥 파랗거나 푸르지만은 않다. 깊고 심오하며 철학적이다. 작가의 내면에 드리워진 청색에 대한 단상은 복잡하고 미묘해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

‘The blue-날다’는 끝간데 없이 펼쳐진 푸른 수평선 너머 외로이 떠 있는 섬을 초점화한 작품이다.

하늘의 푸름과 바다의 푸름은 색으로 경계가 나뉘지 않는 심미적인 경계는 없어 보인다. 질푸른 듯 쓸쓸한 청색은 기실 작가의 내면에 투영된 것으로, 현실과 예술의 경계에서 감정을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그만큼 푸름은 살아서 약동하며, 보는 이에게 다양한 해석의 자유와 아름다운 감성을 선사한다.

작가는 “청색은 단순히 색깔을 넘어, 푸른 하늘과 바다, 신앙과 희망, 성실함과 사려 깊음 등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을 상징한다”며 “내 작품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청색의 감성선으로 투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